

### 3. 정려(정려비 포함)

#### (1) 장충의공정려(張忠毅公旌閭)- 승주읍 서정리 소재,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75호

1649년(인조 27)에 창건된 임란 공신 충의공 장윤의 충신정려이다. 1725년(영조 1)에 충의공의 5세손 장주운(張壽運)이 증건하였으며, 당시 전라도 관찰사 윤득지(尹得知)가 '충신증판서 장윤지려(忠臣贈判書張潤之閭)'라는 편액을 썼고, 현손 세익(世翼)이 여각을 세웠다. '충평속지』에 조태명(趙泰命)의 증건기가 전해지는 이 정려문은 현재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다.

#### (2) 정공부부효열비(丁公夫婦孝烈碑)- 인월동 506-3번지 소재

1875년 효자 정영순과 그의 처 진씨의 효열을 기리기 위하여 향중의 사람들이 조정에 건의, 예조로부터 정포(旌褒)를 받아 영광 정씨 문중에서 정문을 건립한 것이다. 효자 정영순은 천성이 영특하여 『통감』과 경서를 통독하였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함은 물론, 부친의 병세가 위급했을 때 스스로 대신 죽기를 천지신명께 빌며 변을 맞보아 병세를 진찰하는 등 효성이 지극했다고 전한다. 열부 진씨 또한 남편이 병들자 간호를 극진히 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수혈, 4일간을 연명케 하였다. 이에 인근의 향리에서 모두 감탄하여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

#### (3) 광산김씨 김중석효자문(金重錫孝子門)- 매곡동 136번지 소재

1909년 효자 김중석의 효열을 기리고자 호남사람이 조정에 추천하여 세워진 효자문이다. 김중석은 화평부원군(化平府院君) 심(深)의 20세손으로 광산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가사에 종사하며 부모의 교훈을 받들어 그 명성이 높았다. 부친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수혈하는 등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0여 년 후에 호남사람이 조정에 건의함으로써 명정(命旌)을 받아 효자문을 건립하였다. 후인들은 이 효자문을 지날 때마다 '진효자비각(眞孝子碑閣)'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의 두 아들도 모두 효성이 지극하여 인근 마을로부터 '일문삼효(一門三孝)'의 집안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현재 이 효자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식 기와지붕이다.

#### (4) 쌍효문(雙孝門)- 상사면 용암리 소재

상사면 용암리에 위치한 이 쌍효문은 효자 박귀봉과 그의 처 전주 최씨의 뜻을 기리고자 1886년 밀양 박씨 문중에서 건립한 것이다. 이들 부부는 불우한 이웃을 사랑하고 도왔으며, 부모에 효성이 지극했다. 부친이 병상에 눕게 되자 명 의와 신약을 구해 정성껏 간호하였는데 병세가 차도 없이 더욱 심해지자, 부부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수혈하여 6시간 정도 수명을 연장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항상 불우한 이웃을 돕고 부모에게 지성으로 효도했던 박씨 부부의 아름다운 덕성을 기리기 위해 문중에서 쌍효문을 세워 그 뜻을 기리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쌍효문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남아 있다.

(5) 효열부김해김씨지비(孝烈婦金海金氏之碑)- 해룡면 호두리 소재

해룡면 호두리에 위치한 이 효열비는 1897년 김해 김씨의 효열을 기리기 위해 강릉 유씨 문중에서 세운 것이다. 효열부 김해 김씨는 17세에 강릉 유씨 집안에 출가하여 시부모에 효도하고 남편을 잘 섬겼다. 28세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큰 불행 속에서도 시어머니에게 극진히 효도하고 자식들을 잘 돌보아 마을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고 한다. 이에 마을사람들이 고을에 천거하여 포상을 받게 되자, 강릉 유씨 문중에서 그 효열의 뜻을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운 것이다.

(6) 광산이씨효열문(光山李氏孝烈門)- 상사면 마륜리 소재

이 효열문은 1904년 광산 이씨의 효열을 기리고자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아 건립한 것이다. 광산 이씨는 낙안면에서 정화(廷華)의 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성장하여 17세에 남포(南浦) 박대봉(朴大鵬)의 10세손 박기섭에게 출가하였다. 이씨는 시부모 섬기기에 효성을 다하였다. 또한 남편이 병으로 눕게 되었을 때 호랑이 고기를 먹으면 쾌유한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을 구할 수 없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남편에게 구워주어 그 병을 치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되었다.

그후 가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앞 못 보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면서 가세를 일으키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 마을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문중에서 그 뜻을 기리어 나라에 건의하여 위로부터 명정을 받게 됨으로써 효열문을 건립한 것이다. 현재 이 효열문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기와지붕이다.